

미항사 천불... 돌부처 1000개 영구 설치

전시 끝낸 조병연 작가 작품
동시대 예술과 소통 위해
8개월 작업, 설치만 40일
자하루미술관 8m 벽 장식



해남 미항사 자하루미술관 가로 8m 벽에 영구 설치된 조병연 작가의 돌부처 1000개. <행촌미술관 제공>

사람에서 만날 수 있는 천불(千佛)은 수많은 사람들의 염원을 담고 있다. 화순 운주사, 해남 대흥사를 비롯해 서울 조계사, 하동 쌍계사 등 여러 사찰이 천불을 모시고 있다.

해남 땅끝 미항사에도 최근 천불이 설치됐다. 조병연 작가가 돌 1000개에 그린 부처다. 대부분 불상을 제작한 장인의 이름이 전해오지 않는 다른 절과 달리 제작자를 확실하게 알 수 있고 조각이 아닌 그림이라는 점이 이색적이다.

미항사가 운영하고 있는 자하루미술관 한쪽 벽(가로 8m·세로 5m)을 가득 채운 천불은 운주사 천불처럼 각기 다른 모양새에 투박한 느낌이 특징이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돌을 가공하지 않고 모양에 따라 부처를 그린 까닭이다.

좌불, 우불, 날아가는 부처, 한쪽 얼굴이 찌그러졌거나 귀가 없는 부처, 평온하게

나 고뇌에 찬 부처를 만날 수 있다.

조 작가는 지난해 행촌미술관이 진행한 '풍류남도 아트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천 개의 돌부처'를 작업했다. 해남 바닷가를 거닐며 물이 빠질 때마다 마음에 드는 돌을 골라 8개월 간 하루도 쉬지 않고 그린 결과물이다.

부처들은 행촌미술관이 '2016 광주비엔날레' 기념전으로 지난해 9월 자하루미술관에서 연 '해남. 천년의 시간이 머무는 곳'전에 전시됐었다.

전시가 끝난 후 자하루미술관에 보관하던 중 올해 초 금강 주지스님이 영구설치하자는 제안을 한다. 금강 스님은 평소 '불교 전통과 문화예술을 수호하고 후대에 전달하는 것을 오늘날 사람의 역할'이라고 강조해 왔다. 옛것을 지키는 것 뿐 아니라 동시대 문화예술과도 끊임없이 소통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조 작가는 흔쾌히 동의하며 작품을 기증했다. 세월호가 물 밖으로 나오고 잠미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새로운 세상을 바라는 염원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서다.

돌부처 모양이 일정치 않아 설치의 쉽지 않았다. 부처 크기에 따라 못 3~4개를 벽에 박아 구부러 고정시키는 방법을 이용했다. 3월 초부터 작업을 시작해 꼬박 40일이 걸렸다. 크기와 모양, 그림 내용에 알맞게 구도를 잡느라 고민이 이어졌다.

설치가 완료된 부처상은 미항사의 새로운 명물이 됐다. 주말이면 미항사 신도와 방문객들이 부처그림을 구경하기 위해 줄을 서기도 한다.

조 작가는 "작업을 할 때 '세월호 별이 되어라', '박근혜 최순실' 등을 돌 뒤쪽에 쓰며 평화로운 세상을 꿈꿨다"며 "후대가 부처그림과 글을 보고 현 시국을 꼭 기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용희기자 kimyh@

'빙하가 빚어낸 보석같은 풍경'...김상현 개인전

유·스퀘어 금호갤러리 9일까지

웅장한 자연을 사실적인 색채로 캔버스에 담고 있는 김상현 작가가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갤러리에서 9일까지 '빙하가 빚어낸 보석같은 풍경' 개인전을 연다.

5년 전 우리나라 산천 그림을 전시했던 김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노르웨이 등 북유럽과 스위스, 캐나다 풍경을 선사한다.

현재 서강고 교사로 재직하고 있는 김 작가는 세계 여행을 다니며 빙하와 빙하가 만들어 낸 호수 등에 주목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 미래에 볼 수 없을지도 모르는 풍경들을 작품에 담았다.

양들이 정겹게 풀을 뜯고 있는 '노르웨이 하당애르

비다 고원지대', '캐나다 제스퍼 국립공원', '나이아가라 폭포' 등은 차분한 색채를 통해 작가가 당시 느꼈던 감흥을 고스란히 전해준다.

향구마을의 활기찬 분위기가 느껴지는 '덴마크 뉘하운항구', '스웨덴 바사호박물관 앞 구 시가지 풍경' 등은 해수면 상승의 경각심을 일깨운다.

그밖에 '한솔나무' 등 정겨운 한국 자연 모습도 선보인다.

김씨는 전남대 미술학과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광주, 서울 등에서 다수 개인전, 단체전에 참여했다. 현재 신형회, 평면연구회, 디딤희, 한국미술, 광주미협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문의 062-360-8436.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노르웨이 게이랑에르 항구 풍경'

광주일보 문화예술 전문 매거진

예향 5월호

국내외 생태관광 핫플레이스 모음

장성 천진암 정관 스님에 듣는 사찰음식의 진수

'계절의 여왕'이라 불리는 5월에 어디로 여행을 떠날까? 광주일보 문화예술 매거진 월간 '예향' 5월호는 특집 '자연 속으로 생태여행을 떠나자'를 주제로 생태관광의 핫플레이스를 여러모로 소개한다. '쉽'과 '여유'를 주는 생태여행지로 첫 손에 꼽히는 순천만 국가정원과 순천만 습지, 전남도 '민간정원 1호' 속섬 등 다채롭게 살펴본다. 노중훈 여행 칼럼니스트는 호주 '데인트리 열대우림' 등 해외 생태여행지로 독자들을 이끈다.

예향 초대석에서는 사찰음식의 대가 정관 스님(장성 백양사 천진암 주지)을 만나본다. '수행과 섭생은 하나(禪食一如)'라는 철학이 담겨있는 사찰음식은 탐식의 시대, '육방'(오리방승)의 흥수 속에서 눈길을 끈다. 스님은 요리 다큐멘터리 '셰프의 테이블' 시즌 3에 출연해 최근 베를린 국제 영화제에 다녀왔다. 스님을 만나 사찰음식의 철학과 진수에 대해 들었다.

기획으로는 광주 민중항쟁 37주년을 맞아 '정실홍실'(극단 토박이), '언젠가 봄날엔'(놀이패 신명) 등 5·18을 담은

다양한 공연과 전시를 소개한다. 광주 동구 산수동 명소로 입소문이 나고 있는 '국 폴라' 이모저모도 살펴봤다.

국가어항 르네상스 프로젝트 '남도 는 항구다'가 일곱 번째로 찾아간 곳은 고흥 발포항이다. 총무공 이순신 장군의 역사적인 숨결이 깃들여 있고 수산물 생산자인 발포항을 집중 조망했다.

'대한민국 식품명인' 코너는 수십 년째 토종 먹시감을 재료로 전통 발효법으로 감식초를 만들고 있는 입장옥 명인을 찾아간다. '예향이 만난 이사람'은 여행작가이자 '인생학교 서울' 교장인 손미나씨와 광주 대인예술 야시장에서 '서재'로 활동한 이향준 전남대 철학과 교수, '호랑이 군단의 북덩이' KIA 신인 외국인 선수 팻단을 만나봤다.

이 밖에도 '남도 미미락'에서는 광양의 맛과 멋과 흥을 찾아 떠나고, 소문난 예술교육 현장을 찾아가는 '이제는 문화시민이다'에서는 프랑스 바스티유 오페라 극장을 소개한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빛고을시민문화관 하반기 공연장 등 대관 접수

광주문화재단 빛고을시민문화관은 '2017 하반기 공연장 정기대관 및 기타 시설의 수시대관 접수'를 받는다.

신청 대상은 빛고을시민문화관 ▲공연연장(715석) ▲대연습실(181㎡) ▲중연습실(84㎡) ▲소연습실(공간별 38㎡) 2실 ▲다목적실(163㎡)과 빛고을아트스페이스 ▲5층 소공연장(100석) ▲2층 미

디어338(186㎡)' 등 공연·전시·교육 관련 7개 공간이다.

신청 가능 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며 하반기 무대 점검 기간(8월1일~15일), 광주시와 광주문화재단 주최 행사 기간 등은 제외한다. 신청은 17~19일이다. 문의 062-670-7941.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국제보청기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자연과 인간 그리고 예술의 만남

❖ 대형 웨딩홀 준공

❖ 400석 대면회장 신축

❖ 전객실을 편백으로 리모델링한 호텔

백양사 입구 **백양관광호텔**
Beautiful Baeg Yang Hotel

❖ 정원과 테라스가 아름다운 호텔
❖ 실내 결혼식장과 야외 결혼식장을 갖춘 호텔
❖ 출장 뷔페 전문 호텔 = 호텔외식사업부
❖ 교회 행사 전문 호텔

테라스에서 즐기는 치맥한잔!!

치맥한잔

오늘은 치킨과 맥주가 만나는 날

포장가능!!

http://www.baegyanghotel.co.kr/ 백양관광호텔 |예약 및 문의| 061-392-2114